

지상파 방송사의 화면해설방송 현황 분석

안충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hyun@etri.re.kr

Analysis of Descriptive Audio Services of Terrestrial broadcasting

Chung Hyun, AHN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요 약

본 논문에서는 2017 년 1 월 24 일~2018 년 2 월 25 일까지 5 개 지상파에서 방송된 총 957 개의 화면해설방송 콘텐츠를 사용하여, 시각장애인의 방송시청을 위해 제공되는 화면해설방송에 있어서의 실제 방송프로그램내의 각 장르별 화면해설방송의 편성비율, 시청시간대별 편성현황과 화면해설방송에 포함되어 있는 화면해설오디오의 비율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1. 서론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표적인 미디어 시청편의 서비스인 화면해설방송은 지상파 방송은 물론 케이블, IPTV 등 방송매체에서 일정 분량을 편성하여 제공하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1], 정부는 각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을 규제하고 매년 방송사업자의 의무편성 결과를 평가하고 있다. 장애인방송 편성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자발적으로 시정하도록 하고, 편성목표의 위반 정도에 따라 방송평가에서 감점조치를 하며, 차년도 장애인 방송 제작지원금의 보조에 있어 지원을 축소하고 있다.

각 방송사업자의 화면해설방송 의무편성에 대한 평가는 사업자가 송출한 전체 프로그램시간 대비 화면해설프로그램 시간으로 편성비율을 계산하고 있다. 이 방법에 따르면 실질적인 화면해설오디오가 방송 프로그램 중에 매우 적게 포함되어 있더라도 전체 시간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시각장애인이 느끼는 화면해설방송 분량과 정부가 평가하는 분량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화면해설방송을 시간대별로 고르게 편성되지 않고 시청률이 높은 주 시청 시간대(방송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주 시청 시간대는 평일은 19 시~23 시, 주말 및 공휴일은 18 시~23 시이며, 주 시청 시간대의 프로그램 편성은 특정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에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아닌 기타 시간대나 심야, 낮에 편성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화면해설방송은 의무화되어 있는 비율보다도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자체 개발한 장애인방송 모니터링 시스템 [2]을 통하여 획득된 화면해설방송에 대하여, 장르별 분포, 각 장르별 화면해설 방송내에 포함되어 있는 실질적인 화면해설오디오의 비율과 시청시간대별 분포를 분석한다. 화면해설방송 콘텐츠에 포함되어 있는 화면해설 오디오의 비율

역시 자체 개발한 분석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3].

2. 지상파 방송의 화면해설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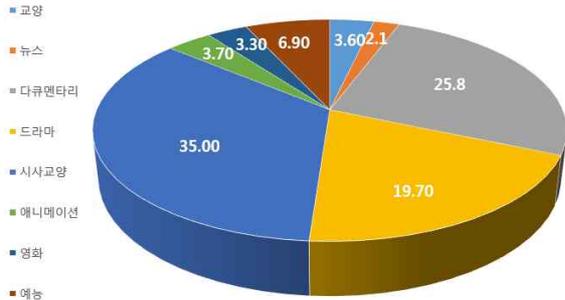
화면해설 서비스(Descriptive Video Service; DVS)란 소리에만 의존하여 TV 를 시청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영상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기 위해 TV 프로그램, 영화 등 대중 영상 매체에 대하여 영상물의 원래 내용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면의 전환(때와 장소의 변화), 등장 인물의 표정이나 몸짓 등과 같은 상황 변화적 요소는 물론이고 대사 없이 처리되는 영상, 자막이나 그래픽과 같은 시각적 요소들을 시각 장애인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음성 해설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3]. 화면해설방송은 장면을 음성으로 해설해주는 대본을 작성하고 성우가 녹음하여 주 음성과 믹싱한 후 부음성에 실어서 음성다중으로 송출한다. 일반적으로 화면해설오디오는 프로그램의 흐름을 해치지 않도록 주 오디오 내 음성이 없는 구간에 삽입된다. 현재 화면해설방송에 대해 지상파는 10%,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은 8%로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1].

3. 지상파방송의 화면해설방송 편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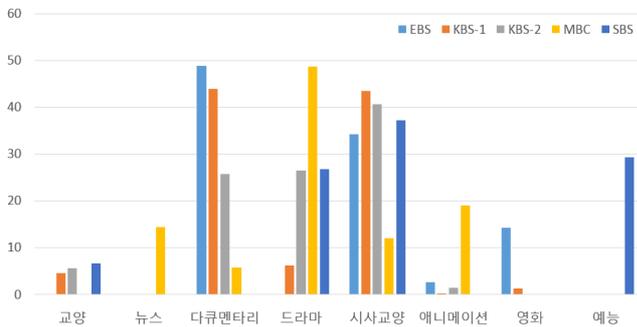
화면해설방송 콘텐츠에 포함되어 있는 화면해설오디오의 비율은 분석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추정하였다 [3]. 분석을 위해서는 자체 개발한 장애인방송 모니터링 시스템 [2]에서 획득한 콘텐츠를 이용하였으며, 2017 년 10 월 24 일부터 2018 년 2 월 26 일까지 KBS1, KBS2, EBS1, MBC, SBS 에서 방송된 총 957 개(750.34 시간)의 화면해설 방송 콘텐츠가 사용되었다.

화면해설방송의 장르별 편성은 교양과 드라마, 다큐멘타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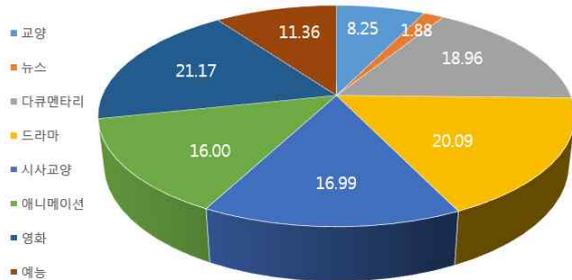
주로 집중되고 있으며[그림 1], EBS 와 KBS1 은 다큐멘타리와 시사교양, KBS2 는 다큐멘타리, 드라마, 시사교양, MBC 는 드라마, 애니메이션, SBS 는 드라마, 시사교양, 예능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 각 방송 프로그램장르에서 화면해설오디오가 차지하는 평균비율은 예능, 뉴스, 애니메이션을 제외하고는 15~20% 정도로 파악되었다[그림 3].



[그림 1] 방송프로그램 장르별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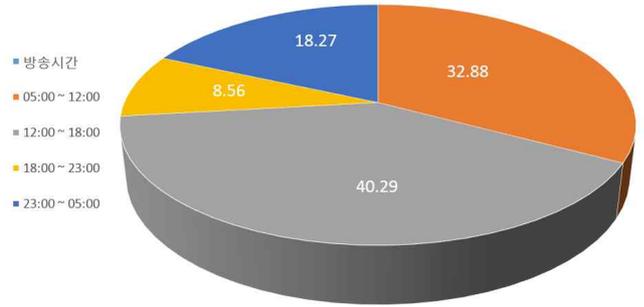
[그림 2] 지상파 방송사의 화면해설방송 장르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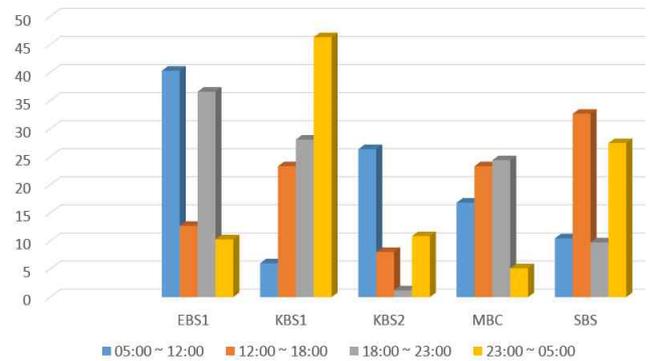
[그림 3] 화면해설방송에서 화면해설오디오 평균 비율

SBS 의 경우에는 예능에, MBC 의 경우 뉴스에 화면해설방송을 편성하고 방송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뉴스에서의 화면해설오디오의 비율은 약 2% 정도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매년 장애인방송 편성평가 결과를 보면 제시된 목표에 대해 목표달성 사업자 수와 달성율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화면해설방송의 경우 제시된 목표치도 낮으며, 대다수 사업자들의 실적은 목표치를 간신히 넘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분석기간 중 화면해설방송의 주 시청 시간대(18:00~ 23:00)에서의 비율은 8.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4]. 또한 각 방송사의 화면해설방송편성을 살펴보면 KBS1 은 오후 11 시 이후 심야시간대의 편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KBS2 와 SBS 는 주 시청 시간대에서의 편성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그림 5].



[그림 4] 화면해설방송의 시청시간대별 편성비율



[그림 5] 방송사별/ 시청시간대별 화면해설방송 편성분포

5. 결론

시각장애인이 TV 를 시청함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화면해설방송이다. 화면해설방송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제작비, 제작환경 등의 경제적 부담으로 절대적인 편성분량의 부족과 함께 본 방송 보다는 재방송에 편중되어 있으며, 방송사업자는 제시된 정량적인 목표달성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시각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화면해설방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들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과 시간대에 편성하여 시청권을 적극 보호하도록 개설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채널과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 목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6.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8 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5-0-00860, 시청각장애인 방송 접근권 향상을 위한 디지털자막 · 음성해설 서비스 기술 개발

7. 참고문헌

- [1] 방송통신위원회,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2012
- [2] 최지훈, 2017, 수화방송 모니터링 기술, 한국방송 · 미디어 공학회 추계학술대회
- [3] 안충현, 장인선, 2017, 화면해설방송 콘텐츠 분석기술 연구, 한국방송 · 미디어공학회 하계학술대회